

별명투어·노을산책...청산도의 가을밤

9일까지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청정 해산물 즐길 항구 포차도 열려

"청산도 가을밤 만끽하세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서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이 열린다.
완도군은 오는 9일까지 '느림을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가을 섬 여행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청산도에서는 밤바위 별명 투어, 노을 산책, 항구 포차, 클래식 발걸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별명 투어는 지난 봄 개최한 슬로걷기 축제에서 인기가 좋아 다시한번 추진됐다.
청산도 슬로길은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른 청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걷다 보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알려진 이름이다.
청산도 슬로길(도리리 마을-서편제길 등)에서 노을을 보며 걷는 2시간 코스 '노을 산책'도 운영한다.
별명 투어는 카카오톡에서 '별 해는 밤, 은하수 버스 투어', 노을 산책은 '청산도 노을 산책'에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청산도 밤바위에서 촬영한 은하수.

〈완도군 제공〉

청산도항에서는 두 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밤에 열리는 항구 포차에서는 청산도의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청산도의 구들장 논에서 재배된 쌀로 만든 떡과 음료수 등도 맛볼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의 주민 해설사 인솔하에 밤바위 전망대에서 밤하늘 별을 보며 가을밤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20개국 120개 기업 참여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

영광군이 20개국 120개 e-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한다.
영광군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2022년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이동의 진화, 작지만 더 큰 미래, e-모빌리티'를 주제로 열리며, 앞서 코로나19로 엑스포가 두차례 취소된 후 개최하는 만큼 더욱 알차고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가수 장민호와 포레스텔라, 박진도, 설하운 등 유명가수들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며 15일에는 임백천의 백뮤직 공개방송과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진행되는 등 특별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번 엑스포는 20개국 120개 e-모빌리티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전시 및 할인 판매하고 방문객 누구나 직접 탑승 가능한 각종 e-모빌리티 체험장이 마련된다. 또 매일 오후 e-모빌리티 제품 등 경품추첨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미래인재 과학축전, 글로리 메이커 페스티벌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업무 협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생태계 보전·소득시설 개선 협력

진도군이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함께 섬 지역 생활환경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안동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도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양 기관의 인·허가를 포함 행정적, 경제적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다.
또 공원 지역 섬마을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고 주민의 생활과 소득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탄소 중립 마을 실현으로 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의 조도면은 28개의 유인 섬 중 가사도와 혈도, 광대도, 송도, 주지도, 양덕도 등을 제외한 22개 유인 섬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살기 좋고 찾고 싶은 섬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 옛 남악출장소에 청년플랫폼 개소

무안에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그리고 꿈을 키워 나가는 공간인 청년플랫폼이 탄생했다.
무안군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최근 옛 남악출장소에 298㎡ 규모의 청년플랫폼을 조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년플랫폼은 청년센터 사무실, 세미나실, 커뮤니티 공간, 공유오피스, 콘텐츠 제작실, 미팅룸, 청년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내년도 사업비 5억원(국비 포함)이 확정되면 야외 테라스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플랫폼 조성에 따라 3만4000여명의 무안 청년들이 고민 상담 서비스와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상담, 인문학 강좌, 동아리·스포츠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김산(왼쪽 세번째) 무안군수가 청년플랫폼 운영 주체인 청년지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청년플랫폼을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민선8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박우량 군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부회장

전남시장군수협회장 이어 선출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중추 국가 정책과 시책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달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

의(사진)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회장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자치분권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박 군수는 민선 8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서해해경청, 10월부터 해양 마약류 특별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마약류 범죄를 단속해 219건을 적발하고 257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마약수사팀과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도서지역과 선박, 항·포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어촌의 양식장과 조선소 등에서 불법

으로 마약류를 투약·유통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앞서 지난해 4월 지방청 소속 마약수사팀을 신설해 배태당 팀장을 비롯한 형사 3명을 배치했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매년 마약류 소지·운반·투약·유통 등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서·남해 지역의 마약유통과 투약 등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 매매알선, 수수, 제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